

# 《기능 변화 : 첨단 테크놀로지 상품의 성패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 첨단 기술의 성공 열쇠 '소비자 만족감'

원 제\_ (The Change Function: Why Some Technologies Take Off and Others Crash and Burn)  
 저 자\_ 피프 코번 (Pip Coburn)  
 출판사\_ Portfolio

“더 나은 것을 만들어라! 그럼 소비자가 찾을 테니까!” 정말일까? 정말로 더 나은 것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대리점 앞에 문전성시를 이룰까? 그런데 1990년대 중반쯤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쌍방향 텔레비전’ (Interactive TV)은 왜 아직도 감감 무소식일까? 당시에는 이 텔레비전의 연간 매출이 2006년 즈음에는 3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있었는데 말이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 이른바 첨단제품이란 것이 대중적으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다. 그럼 테크놀로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월스트리트에서 살아있는 보고서를 쓰는 테크놀로지 전략가로 알려진 피프 코번(Pip Coburn)이 이런 의문을 추적해서 《기능 변화: 첨단 테크놀로지 상품의 성패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The Change Function: Why Some Technologies Take Off and Others Crash and Burn, Portfolio, 2006)을 출간했다. 그가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찾아냈다는 해답이 궁금하다. 그래, 결론부터 알아보자. 코번의 결론은 역발상이다. “현재 상황의 고통이 신제품 사용법을 배우는 고통보다 커야 소비자가 찾는다!” 내가 역발상이라 말한 이유는 간단하다. 신제품이 주는 행복감은 테크놀로지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큰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나 상대적이어야 하고, 거기에는 고통과 비교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결론은 “신제품에서 얻는 이익이 신제품의 사용법을 배우는 고통보다 커야 한다”라고 다시 쓸 수 있다.

2001년 컴덱스 개막연설에서 빌 게이츠는 ‘태블릿 PC’의 출시를 선언했다. 태블릿 PC는 쉽게 말하면 A4용지 크기의 신형 휴대용 PC로 노트북의 휴대성과 개인정보단말기(PDA)의 편의성을 겸비한 제품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떨까? 저자는 태블릿 PC를 실패한 테크놀로지에 포함시켰다. 그럼 태블릿 PC는 왜 실패했을까? 저자는 전략적인 실패들을 거론한 후에 “소비자는 배우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덧붙인다.

과거의 사례만 두고 이야기하면 재미없다. 게다가 과거에 실패한 사례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재미는 미래에 실패할 테크놀로지를 예언하는데 있다. 물론 저자의 독단적 판단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 홈’이다. 말 그대로 가정 내 정보가전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홈 네트워크를 몇 단계 뛰어넘은 상품이다. 하지만 저자는 “소비자는 아직 텔레비전을 PC로 대신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라는 말로 ‘디지털 홈’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한다.

물론 미래에 성공할 테크놀로지 제품도 예외 없이 전망되었다. 반갑게도 그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평면 디지털 텔레비전이다. 하기사 이 텔레비전은 소비가 새로운 사용법을 힘들게 배워야 할 것이 없다. 또 하나는 ‘위성 라디오’ (satellite radio)다. 그 이유도 소비자 관점에서 설명된다.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권을 원하는데 위성 라디오는 그런 선택권을 제공해줄 수 있다. 또 소비자는 상품 광고가 최소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위성 라디오는 광고를 들어야 하는 소비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위성 라디오는 이런 성공의 조건을 갖추었고, 따라서 성공할 것이란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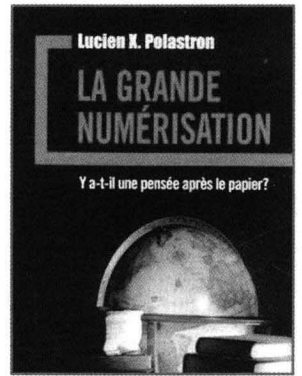
그러나 저자는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을 던진다. 테크놀로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랜 투쟁을 이겨내고 우뚝 선 테크놀로지도 많다. 핸드폰은 미국에서 1946년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첫 비디오 게임은 1961년에 태어났다. 은근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교훈이다. **▶**

글쓴이\_ 강주현(번역가)

# 《디지털化의 大役事: 종이 이후에도 思考는 존재할까?》

## 출판산업의 위기, 그 대처법은?

원 제 《La Grande Numérisation: Y a-t-il une pensée après le papier?》  
저 자 루시앵 폴라스트롱 (Lucien Polastron)  
출판사 Denoel



지난 2004년 12월, 인터넷 검색회사 '구글(Google)'은 세계 주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약 1500만 종의 장서들을 디지털로 문서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향후 10년 동안 2억 달러를 투입하여 미국 주요 도서관에 있는 대부분의 장서들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세계 최대의 '구글도서관'도 완성할 것이라 발표했다. 다음 해 5월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6개국 문화부장관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유럽연합 중심의 디지털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문서와 서적들의 디지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약 2천년 동안 인간의 지식을 담고 전파했던 종이책의 미래를 이제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단연컨대 종이책은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 것이다. 무거운 책가방 대신 학생들은 거의 모든 문서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하나만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가? 약 2천년의 세월 동안 인간의 지식을 담고 전파해 주었던 종이책이 그것을 담는 매체의 교체만으로 단순명료하게 종말을 고할 수 있을 것인가?

프랑스의 서지학자이자 저술가인 루시앵 폴라스트롱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사라진 책의 역사》(동아일보사)를 통해 인간의 책에 대한 약탈과 파괴의 역사를 정리한 바 있다. 이 책의 끝머리에서 그는 어쩌면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새로운 의미에서 책과 지식에 대한 파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여기 소개하는 그의 후속작 《디지털化의 大役事: 종이 이후에도 사고는 존재할 것인가?》는 앞선 책에서 문제제기에 그쳤던 '종이책의 소멸과 지식의 위기'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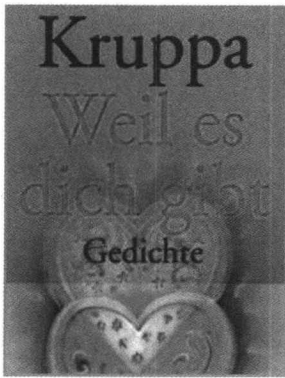
지식의 확산과 자유로운 이용이란 측면에서 보면 정보의 디지털화는 마치 책상 위나 호주머니 안에 도서관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옛날처럼 책장을 뒤지지 않아도 검색어만 두들기면 관련된 정보들을 끝없이 얻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보의 천국을 지식의 위기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요즘 독서논술 지도서 중에는 꼭 읽어야 할 근, 현대 고전들의 핵심만 요약해 놓은 참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정보를 통하면 우리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지 않고도 책의 줄거리, 주제, 주인공 이름 등 그 책에 대한 웬만한 정보를 다 캐낼 수 있다. 학생들은 필요한 부분들만을 발췌하여 자신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또 한 편의 논문을 짜깁기할 수도 있으며, 책 한 권 읽지 않고도 수많은 문인들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던 멋진 격언들을 줄줄이 읊어낼 수 있다.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책은 지식의 보물창고가 아닌 죽은 말들의 쓰레기더미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덧붙여 지은이는 인류의 지식과 문화유산들이 정보를 가공하는 기업들에 의해 상업화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그는 구글을 비롯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정보의 무상공유가 절대 아님을 강조한다. 구글은 무료서비스를 공언했지만 접속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광고를 접해야 할 것이고 회원 등록을 할 것이며 결국 자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 회사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유틸리티를 통해 방대한 지식컨텐츠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보 디지털化의 길 앞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다. 출판과 인쇄산업은 재빨리 업종을 전환해야 할 것이며 도서관 근로자들은 실업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책의 저작자들은 자신의 저작이 무단 복제되거나 표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끝도 없는 소송을 계속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계획에 대해 미국에서는 이미 출판협회와 작가협회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보의 디지털化와 종이책의 소멸과 함께 닥쳐올 수많은 문제점 논쟁거리들에 대한 모든 사전 시나리오를 우리는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

글쓴이 \_ 조정훈(번역가)



# 《그대가 있기에》

## 해맑고 현실적인, 그래서 호소력 짙은 시

원 제\_ 《그대가 있기에, 사랑시》(Weil es Dich gibt, Liebesgedichte)  
 저 자\_ 한스 크루파(Hans Kruppa)  
 출판사\_ 골드만(Goldmann)  
 출판년도\_ 2002년

“우리의 사랑은/ 나의 생의 심장이라네,/ 그 노크에 내 안의/ 문은 어느 거나 열린다네./ 우리의 사랑은 빛이라네,/ 그 빛으로 나는 세상을 보고/ 아름다움을 찾는다네/ 혼돈을 헤치며 가는/ 나의 길에서/ 우리의 사랑은 동화라네./ 그것은 마법이라고는 없는/ 현실의 등 뒤에서/ 제 마음을 열어 이야기를 들려준다네.”(《우리의 사랑》)

독일에서 많은 독자를 거느린 시인 한스 크루파의 시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류시화와 비슷해 보인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잠언조로 인생을 깊이 성찰한다는 면에서 그렇다. 우리와 달리 시의 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독일에서 수백만 부씩 팔려나가는 한스 크루파에게는 뭔가 매력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특히 사랑시를 쓴다는 면에서 우리는 그의 시를 잘 새겨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릴케는 시 쓰기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힌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시는 쓰지 마십시오.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 흔하고 평범한 것들은 우선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다루기가 아주 힘들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훌륭한 작품들이 무진장한 곳에서 당신의 개성을 보여주려면 크고도 완전히 성숙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릴케는 사랑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페트라르카, 셰익스피어 같은 대가들이 즐비한, 인류의 영원한 테마인 사랑시의 영역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개성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면에 이야기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한스 크루파의 사랑시가 갖는 개성은 무엇인가? 크루파는 자신의 사랑시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시는 모든 문학 장르 중에서 사랑을 직접적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심장의 언어입니다. 한 편의 시의 행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가 태어날 때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머리보다는 가슴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시 쓰기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의 개성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파토스에 치우친다는 말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사랑의 순간을 독자를 향해 쉽고 다정한 어투로 들려준다. 그의 시들은 일상에서 나왔으며 일상을 위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는 좀 유희적인 면을 보일 때에도 결코 삶의 진지성을 잃지 않는다. 크루파 자신도 “나는 나의 진실을 되도록 순수하게 알리기 위해 시를 씁니다”라고 말한다. 그가 택한 시 쓰기의 방식은 아주 시적으로 쓰되 진부하지 않고 현대적인 맛을 내는 것이다.

“그대만을 위해 나의 눈길을 꽃피우고/ 나의 느낌 속으로 미역을 감으러 가고/ 나의 생각들을 닦겠어요/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그대만을 위해 나는 외다리로 춤을 추며/ 대로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겠어요/ 남들이 비웃어도 난 상관없어요.”(《그대만을 위해서》 중에서) 그의 사랑시는 이렇게 에로티시즘을 좇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멋지게 드러낸다는 데서 그 탁월함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시의 또 다른 강점은 - 이것은 그의 시가 갖는 잠언적인 특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 주제 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을 찾아 노래하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찾아 길을 떠나는 사람만이 남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고 한 걸음 걸음마다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독자는 생의 기쁨을 추구하는 한스 크루파를 따라 마음과 느낌의 고품비행을 하거나 깊은 잠수를 하게 된다. 크지 않은 그의 언어의 몸짓은 몽환적이지 않고 해맑고 현실적이며 그 때문에 더욱 더 독자의 가슴을 향해 호소력을 지닌다.

시집 《그대가 있기에》는 이미 독일 사랑시의 거장으로 평가되는 한스 크루파의 사랑시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120편의 시를 모아둔 선집이다. 시는 계절에 따라 분류하여 담겨 있다. 1952년생인 한스 크루파는 프라이부르크에서 영문학과 스포츠학을 전공했으며 1981년부터는 전업작가로 브레멘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3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하였다. 특히 그는 독일에서 시와 동화를 잘 쓰는 작가로 유명하다. **출판**

글쓴이\_ 김재혁(번역문학가, 시인, 고려대 교수)

# 《천산의 신녀 선이, 황금의 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환타지 소설

원 제\_ (天山の巫女ノニン)  
저 자\_ 아이다 미치오 相田みつお(Aida Mitsuō)  
출판사\_ 講談社(Kodansha, Ltd)



태어나자마자 신선의 산이라고도 불려지는 천산 신녀에게 선택받은 아이 '선이'.

호리병 모양을 하고 있는 반도에는 거산, 강남 그리고 사이라고 하는 나라가 접해 있고 그 나라의 중심에는 가늘고 높게 뻗은 산이 있다. 바로 이 산이 그 시대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진 신녀들이 사는 천산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선대의 신녀들이 점지한 소녀들만이 들어 올 수 있다. 물론 선이는 전대 최고 신녀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그 기운을 받아 들어오게 된 아이인데, 이제 곧 이 소녀에게 지금의 최고 신녀님의 "하산하라"라는 명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2년간 수련을 해온 선이의 예지력은 천산의 신녀로서는 자격미달이었기 때문에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선이의 운명에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최고 신녀님과 선이의 혼혈신녀였던 노아 이외에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선이는 태어나서 한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유나 언니를 만나게 되는 즐거움으로 들떠있다. 그리고 그들의 품으로 돌아온 선이는 지금껏 느끼지 못한 가족의 사랑과 아랫동네에 사는 민과 호이 남매와의 우정도 쌓아가게 된다. 그런 일상적이고 행복한 어느날 운명적으로 만난 사이국의 왕자 행렬에서 제7왕자인 '이월왕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시녀로 궁에 들어가게 된다.

이월왕자의 시녀로 들어가게 된 선이의 일은 그다지 없다. 단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월왕자를 대신하여 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십을 대신 듣고 전해줄 뿐이다. 왜냐하면 선이에게만은 이월왕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신녀교육을 받았기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다'라는 가르침 또한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매일매일 열심히 이월왕자에게 많은 정보를 전해준다. 그러던 중 궁에서 현왕의 동생이라고 하는 양친과 그의 부인 렌히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만난 후, 선이는 묘한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나라 일대에 살고 있는 이리떼를 모두 잡아버렸다는 '이리 잡는 왕'의 나라 거산과 평화로운 강남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즉 전쟁이 날거라는 소문이다. 그리고 사이국은 평화를 유지하던 강남에게 출병할 것을 정하게 된 그날, 선이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궁 안의 소식을 듣고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월왕자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던 돌아가신 왕비마마의 처소를 지나치게 되는데 이곳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린다. 주저 없이 선이는 들어가선 안 될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연히 이 전쟁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양친과 렌히의 대화를 듣게 된다. 이때 선이는 렌히에게 궁에서는 비밀로 하고 있던, 자신이 천산에서 쫓겨난 신녀 수련생임을 듣게 된다.

결국 렌히와 양친의 음모에 빠진 왕자들과 선이. 선이는 구사일생으로 왕의 호위무사인 이르기 장군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지만 왕자들은 이미 양친과 렌히의 음모에 빠져 위급한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천산으로 도움을 청하려 간 선이는 다시금 예지력을 테스트 받게 되고, 최고 신녀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선이 자신의 힘으로 왕자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모험이 시작된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선이는 결코 후회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앞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또 많은 이들의 도움을 얻어 드디어는 왕자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그리고 본인의 누명도 모두 벗게 된다.

이 이야기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신녀 선이를 통해서 주위의 평가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밝고 명량한 아이'의 환타지다. 또한 선이가 주위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믿음직한 인간관계를 구축해가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환타지 소설이다. 제46회 심사위원 만장일치의 고단샤 아동문학 최고신인상 수상작이다. **★**

글쓴이\_ 한귀숙(임프리카 코리아 에이전트)